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력한 새 전술무기들의 훌륭한 성공복음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사장에서 새 무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 이 무기체계개발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의 전략전술적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에 오르시어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격구역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은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

을 알리듯 눈부신 섬광을 내뿜었다.

시험사격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무기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의 영상 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사격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당에서 방향만 주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당중앙의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하고 관철해가고있는 이들은 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어려움과 난관을 잊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가장 고결한 조국애를 지니고 당의 국방공업발전전략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 없이 다져가고있는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위훈은 우리 당의 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될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

본사기자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 방문 단장이 열렬히 칭송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리병희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은 조국해방 74돐에 즈음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에 중추부를 찍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변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된 삶과 행복은 력사의 이날과 잇닿아있다.

조국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방문단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은 겨레가 높이 칭송하듯이 김일성대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다.

일찍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깃잡힌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실 숭고한 사명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상상할수 없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시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력력히 어

러있는 항일혈전의 자욱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다.

그이를 모시였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의 혈통과 언어, 력사와 문화를 빼앗긴 비참한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망국노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평초처럼 떠돌던 해외동포들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에 한 성원으로 될수 있었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는 오늘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다시금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은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사를 잊지 않을것이며 그이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실것이다.

조국을 찾아주시 위대한 대원수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절충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겨레가 리쳐던 해방만세의 함성은 통일의 환호성으로 삼천리강토를 진감할것이다.

본사기자

평양타조목장 개건현대화공사 완공,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개건된 평양타조목장이 준공되었다.

조선대양총회사와 평양타조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목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굴지의 타조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며 번듯하게 개건된 목장에는 타조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여러종의 생산건물과 110여개의 타조우리, 과학기술보급실, 체육관 등이 새로 일떠섰다.

또한 타조고기 가공공장, 알개우기실을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면모가 일신되어 종업원들이 보다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벌여나갈수 있는 조건이 그 쏠려 갖추어졌다.

평양타조목장이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생산 및 가공기지로 꾸러짐으로써 타조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건현대화된 평양타조목장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사를 광영호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평양타조목장 개

건현대화공사의 완공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워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만리마시의 전형들이 발휘한 창조정신, 투쟁분배로 오늘의 대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나아가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아담하고 문화적인 생산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목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새로 개건현대화된 평양타조목장

《국가의 존엄은 국력으로 지켜야 한다》

로씨야인사들 공동담화 발표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구루빠 책임자 위팔리 케베제브와 《붉은별 TV》 책임주필 안드레이 웨르제브가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지지하여 7일 《국가의 존엄은 국력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공동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진행된 위력시위들과 시찰사격들은 자위적국방력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들로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려는 적대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조선이 취한 결단성있는 조치들과 날로 강해지는 국력에 대해 공감과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최신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상태에 몰아가고있다.

자기 나라 주변의 령도와 평행에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보지만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공화국의 존엄을 해치려는

세력들의 행위가 더욱 로팔화될수록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공화국의 조치들은 계속 따라서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행위들을 단호히 지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고려 후반기와 조선봉건정부 초기에 우리 나라와 중국의 해안지대에 침입하여 략탈민행을 감행하던 일본 해적들을 가리켜 왜구라고 하였다. 왜구들은 주로 쓰시마, 북규슈해안을 비롯한 조선반도와 가까운 섬들과 해안지대에 근거지를 정하고 우리 나라와 중국해안지대에 침입하여 재물을 략탈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고 략치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로팔화되는 왜구들의 침입에 고려정부와 조선봉건정부는 쓰시마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여 왜구들을 징벌하였다. 특히 1419년에

있는 제2차 쓰시마원정시 조선함대는 수많은 적을 살상포로하였으며 수많은 왜구의 배와 살림집을 소각 해버렸다. 이에 절절한 왜구들은 귀순과 복종을 서약하면서 조선에 거류하여 무역을 할수 있게 승인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조선봉건

정부는 왜구들을 회유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1423년에는 부산포, 병이포에, 1426년에는 염포에 왜구들이 거류하면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세살때 버릇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부산포, 병이포, 염포(일명 3포)에 거류한 토

착왜구들은 해적행위를 일삼던 버릇을 못 고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1510년에 있는 3포왜인들의 반동이 그 하나이다. 토착왜구들은 섬나라의 간특한 기질로 조선에서 막대한 물질을 거두어 보았을뿐아니라 일본

의 조선침략준비를 도와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정략행위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토착왜구당》으로 락인적혀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경제침략》이라 일컫는 일본의 횡포한 경제보

복행위를 두고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할 때이다.》고 떠들면서 《우리 일본정부》라고 부르는 쓸개바진자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자한당》이다. 온갖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일본이 제철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보존해야 한다고 녀드리질을 하는 것 역시 《자한당》이다. 인민들이 철체를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이 지난 시기 3포에 틀고앉아 갖은 못된짓만 골라하던 일본해적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인민들이 《자한당》에 《토착왜구당》이라고 별명을 단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평양타조목장에 새로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

흔히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 없

는것을 모래알에 비견곤 한다. 그러나 거창하고 웅장한 대상

들을 모래알에 비겨 이야기한다면 그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주제사상탑이 바라보이는 평양의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한번에 1230여명의 손님들이 민족음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

름난 요리들도 봉사받으며 풍치 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인가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평양

제 일 기 뽐 일 이 라 고 하 시 며

다고, 대동강에서 유람조직과 관광조직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보

다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

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

후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 차려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건조

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

시켰을뿐 아니라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친히 명명하여

주시었다.

주제104(2015)년 9월 어느날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

개》호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배를 타고 대동강

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

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 줄 재물을 한가지, 한가지 마

련해줄 때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무지개》호는 우리가 인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비해볼 때 정말 한알의 작은 모래알이나 같다고, 이런 모

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래알과 큰 산! 대동강에 종합봉사선이 뜬 때

로부터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저마다 《멋있는 배》, 《훌륭한 배》, 《특색있는 배》

라고 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표시하고있다.

비록 배 한척이지만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얼마나 큰 배인가.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합봉사선을 자그마한 모래알에

비기신것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표현이시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오르내리며

보노라면 그 주변 풍경은 불만하다. 고려시기의 유명한 시인

김향원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긴 성벽기슭으

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

라는 시구를 써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수

없게 현대적으로 변모된 대동강 주변의 모습이다.

주제사상탑, 평양대극장, 인민대학습당, 양각도국제호텔, 창전

거리, 미려과학자거리, 풍랑인민유원지, 5월1일경기장, 평양대동

강수산물시장, 류경원... 더위가 계속되는 지금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강반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와 웃고 떠들며 달아오른 몸을 식히고있다. 이 문수물놀이장 하

나에도 령도자의 애민헌신의 무수한 땀방울들이 스며있다.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맡았던 한 설계가의 말에 의하면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 주무시는지 알수 없었다고, 자기들

이 올린 형성안을 보아주시는 시간이 자정이 훨씬 넘은 새벽시간들

이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밤새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이른

침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곤 하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

아주신 형성안이 113건이나 된다

고, 매일 경애하는 원수님께 형성안을 보고드리고 그이의 결에서

지도를 받다나니 자신을 비롯한 설계가들도 언제 113건이 되었

는지 몰랐다고 하였다. 113건!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가시는 인민을 위한 하나

하나의 《모래알》에는 이런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는

것이다. 하다면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자면 얼마

나 크나큰 로고가 바쳐져야 하는것인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

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

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서 우리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

한 의지에 의하여 만났을 만큼 높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

물이라고. 진정 그 《모래알》들이 생기고 또 생겨 이 땅우에는 인민을

위한 눈부신 전병의 새 모습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

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어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헌신과 심혈이 깃든 그 모든것을

작은 모래알로 보시며 보다 휘황할 래일을 앞당겨오시러 불철

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 그이께서 《모래알》들을 하나

하나 마련하여 쌓아가시는 《큰 산》, 그것은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의 참모습인 것이다.

한철진



인민을 위한 첫손님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창조물들은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

회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

정은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령도가

안아온 결실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모든것이 인민의

마음에 드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마음쓰시며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자신이

첫손님이 되어보기도 하시었다.

마시령은 산이 많은 공화국에서

무수한 령도자들의 하나이다. 산세가 험하고

수림이 우거져 말들도 령을 넘기가

힘들어 뛰어갔다 그 이릉도 마

시령인 인적드문 그곳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복의 누더위와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았고

찾고 하시었다. 바로 이곳에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까지 건립할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102(2013)년

12월말 완공된 마시령스키장건설

을 다시금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서는 마시령지구의 특색이

잘 살아난다고, 흙잡을때가 없다고

대변에 없애주신 《골치거리》

주제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건중에 있는

양각도국제경기장을 찾으신것이다.

한동안 경기장주석단쪽을 바라

보시던 그이께서는 양각도국제경기

장 주석단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과는

다른 석단쪽이 모든 면에서 경기

장에 어울리지 않아 시공자들에게

《골치거리》로 되었던 문제를

대변에 바로잡아주시는것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그이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보

아도 현관들을 한가지 형식으로

꾸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고정식화면 틀이라고 하시며 현

관은 건축물에는 움직일수 없는

구급환자가 많지 않은것만큼

차현관은 형식에 불과하였다.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

주제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공장을 찾으신것이다. 만

주제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건중에

있는 양각도국제경기장을 찾

으신것이다. 한동안 경기장주

석단쪽을 바라보시던 그이

께서는 양각도국제경기장 주

석단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경기장주석단은 광장주석단

과는 다른 석단쪽이 모든 면

에서 경기장에 어울리지 않아

시공자들에게 《골치거리》

로 되었던 문제를 대변에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그이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보

아도 현관들을 한가지 형식으로

꾸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고정식화면 틀이라고 하시며 현

관은 건축물에는 움직일수 없는

구급환자가 많지 않은것만큼

차현관은 형식에 불과하였다.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

주제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공장을 찾으신것이다. 만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

공화국에는 적대세력들의 어떤 제재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세계선진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 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 역량,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이 바로 그것이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무엇보다도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이다.

자립경제 토대는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준립의 기초이며 전진과 발전의 동력으로 되고 있다.

지나온 력사를 돌아보면 적대세력들은 자주의 성세인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한결같이 물러서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

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경제를 건설해놓았다. 하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기적의 나라로 되었다.

오늘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어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굴복시키고 전진을 가로막아보려 하지만 자립경제의 막강한 토대에 의거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다음으로 국가가 품을여 키운 능력있는 과학기술 역량이다.

지금은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시대이다. 오늘날 해당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세계적인 국력경쟁에서도 과학기술경쟁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과학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되자면 자체의 든든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에는 절세위인들께서 수십년동안 품들어 키워주

신 능력있는 과학자대군이 있다.

공화국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되고 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과학기술중시선과 전진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과학기술력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경제발전은 힘있게 견인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은 또한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이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의 원천은 인민대중의 양양된 정신력이며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발휘하는 힘에 한계가 없다.

이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년대와 년대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공화국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투쟁행로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민족자주위업의 전 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빛나게 수놓아온 애국적인민, 영웅적인민이다. 세상에 공화국인민들처럼 애국열, 투쟁열로 불라는 무한대의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은 없다.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삼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이런 인민을 굴복시킬수도, 당해낼수도 없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제철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들의 창조적힘을 귀중한 전략적 자원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강대한 나라로 통성변영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리성철

공화국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확립한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그 기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생산활성화에서 큰 은을 내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연구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속에서 경제강국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가는 오늘날의 시대적요구에 부합됩니다.》

리기성연구사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은 발전하는 현실적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 경제규모가 지난 시기보다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업종도 늘어났으며 경제의 각 부문, 단위들사이의 연계도 더욱 긴밀해졌다.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강화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나라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은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활성화를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기업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성이 확증됨에 따라 점차 전국에 확대되었습니다.》

리기성연구사에 의하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은 3가지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의 옹호를 실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 옹호를 실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이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주제사상의 원리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확립되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였다.

리기성연구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진행하여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확대된 경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 리기성연구사의 견해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전략을 세우고 확대된 경영권을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형기업을 지향해가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무엇보다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

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고 말하였다.

실례로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국가에서 준 계획지표외에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비단생산을 위한 누에고치 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현대적인 비단솜이 불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분리되어

로 틀어주고 생물학, 화학, 의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분야와 련관되어있는 화장품공업의 특성에 맞게 각이한 대학졸업생들로 공업시험소를 꾸리고 협동공업을 심화시키고있는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도 제공개발된, 인재관리권을 활용하여 질 좋고 다양한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본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케어》유한책임회사 인 사들은 일군들로부터 기술자,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창안을 내놓고 적극 도입해나가는 기술발전체제가 확립되고 제품생성주기가 단축되어 《은하수》화장품들이 명제품으로 되고있는 데 주목을 물었다고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을 리용하여 새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품질보증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기간에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7개 생산공정들이 식품안전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인증 받은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이 장성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간것도 주목할만 한 일이다.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류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납부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자금을 자체 결산에 따라 확대재생산과 문화후생사업, 근로자들에게 대한 물질적우대에 리용하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자립적발전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병식

생산활성화를 추동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있던 누에고치결면제거와 고치선별공정을 한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배치를 새롭게 하여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지난해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생산을 다중화, 다양화해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다품종소량고질합금강선공정과 망간철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등 새로운 생산조직사업이 품이 크게 벌어진것도 기업소에 부여된 확대된 경영권을 원

로 하는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확립되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였다.

리기성연구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진행하여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확대된 경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 리기성연구사의 견해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기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전략을 세우고 확대된 경영권을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형기업을 지향해가고 있다.

리기성연구사는 무엇보다도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새로운 기업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자체의 계획관리와 생산조직권을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



리기성연구사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대의원

지난 7월 21일 공화국에서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결과 2만 7876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류순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있다. 구역안의 주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일육심

기자가 평양시 보통강구역 인민위원회를 찾은 날은 삼복의 제는듯 한 무더위가 한창인 7월 30일이었다. 마침 그날은 공화국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던 73돛이 되는 날이었다.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뜻깊은 날에 녀성일

들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장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말로부터 우리 대의원, 우리 위원장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우는 류순위원장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우리 구역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가리켜 우리 위원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는 언제나 어머니십정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위원장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철책임부인의 말에 의하면 류순위원장은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육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계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자나깨나 그이의 뜻대로 살며 일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군을 취재한다는 류다른 심정을 안고 그의 사무실로 향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방은 비어있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사무실에 만나기 힘들답니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김정철책임부인이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우리 위원장동지는 온 구역을 메주밟듯 하기때문에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였다. 먼저 그에게서



경제하는김정은장군님의참관아들말이되자!

는 작은 수첩이 있다. 그 수첩에는 구역안의 수백여명에 달하는 전정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생활상 예로가 있는 세대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들에게서 무엇이 애로되고 언제,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

《우리 위원장동지는 눈물도 많고 위가 많습디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동지를 어머니처럼 따릅니다.》

보통강구역 대보통에서 살고있는 한 류투영예군인이 한 말이다.

류순위원장의 첫 일과는 아침일찍이 구역을 한바퀴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구역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술걸을 같이하고있다. 하기에 구역주민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속고종도 허물없이 러놓곤 한다.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상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나며 많은 일을 한 류순위원장을 나라에서는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웅대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로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많은 일을 더 잘해나가는가 하는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대의원, 류순위원장은 오늘도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서 구역주민들을 위한 남모르는 헌신의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